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평가

정성희 연구위원

■ 최근 중국 보험산업의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신 수익모델 창출이 독자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이는 중국 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을 포용하고 다양한 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결과로서, 그 배경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와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우리나라도 보험회사의 적극적 건강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정비 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미국 등 선진국이 글로벌 헬스케어서비스¹⁾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중국 보험회사들의 헬스케어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중국 중안보험(众安保险²⁾)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상태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탕샤오베이(糖小贝)’를 출시하는 한편, 타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영역의 확대를 추진함.

● 중국 인터넷기업인 텐센트(Tencent)와 협업하여 개발한 ‘탕샤오베이’는 가입자에게 혈당측정 단말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송되는 혈당데이터를 분석하여 혈당치 호전 여부에 따라 갱신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방식임.

– 가입자의 질병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국가 의료보험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의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음.

● 중안보험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신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기업,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헬스케어서비스 사업³⁾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1) 개인의 질병·상해·심신 상실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 및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제반 서비스를 의미함.

2) 평안보험(平安保險)의 자회사로 인터넷 전문 보험회사임. 주요 주주는 평안보험, 알리바바(인터넷 판매사), 텐센트(포털업체), 슈청(여행사이트) 등으로 이들 업종 간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극대화를 도모함. 2015년 ‘세계 핀테크 톱100’에서 핀테크 강국인 미국, 영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함(KPMG).

3) 단순한 핀테크 영역을 넘어 의료기기, 빅데이터, 의료기관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여 통합·확산된 비즈니스 개념의 의

- 중국 알리안츠는 임신부 및 태아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KAISHI’를 통해 건강보험시장에 진출함 (〈표 1〉 참고).

- ‘KAISHI’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협업하여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태아 건강·발달 모니터링, 실시간 의료상담서비스, 임신부 영양·활동 관리 등 임신부와 태아 건강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알리안츠는 ‘KAISHI’가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협력 기반 확보에 노력함.

〈표 1〉 중국 알리안츠의 ‘KAISHI’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사례

서비스 내용	핵심 요구역량	파트너십 구축 및 협력 기반 역량 확보 내용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 태아 건강·발달 모니터링	디지털 디바이스 기반 태아 상태 정보 수집	• 태아 심장박동 기기업체 인수 • 블루투스 등 글로벌 전자업체와 기술 제휴 추진
	수집된 정보 기반 건강 발달·정보 분석 (데이터 검색·분석 엔진)	• 산모·태아 전문 헬스케어업체 제휴, 태아 건강·발달 정보 분석 알고리즘 확보
실시간 의료상담	전문 의료지식 및 의료 네트워크 보유	• 중국 산부인과 제휴, 진료기록관리·원격의료자문 서비스 개발
임산부 영양·활동 모니터링 및 개선 플랜	고객접생활동(영양, 운동) 정보 수집	• 음식 사진 기반 영양소 분석 기술 제휴 확보 • 보행 수 로그 트래킹 기술 제휴 확보
	맞춤형 식단·영양제·운동 추천	• 헬스케어 업체 제휴, 영양·활동 정보에 근거한 식단·활동 플랜 제공
	연계용품 중개	• 전자상거래 및 소매업 연계 상품·서비스 판매 중개

자료: BCG(2016년), 『서경금융전략포럼』, 발표자료 재구성.

- 최근 중국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용을 통한 신 수익모델 창출은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혁신과 협업의 결과로, 그 배경에는 중국 인터넷 기업의 헬스케어서비스 사업 확대와 중국 정부의 정책 지원 및 규제 개혁이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 신생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터넷 기업⁴⁾도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의료부문의 자원 부족과 낮은 접근성⁵⁾에 대한 대안으로 헬스케어서비스의 활용을 적

료·헬스 O2O(Online to Offline) 개념임.

- 4) 텐센트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예약 플랫폼 중 하나인 Gauhao.com에 투자하였으며, 또한 온라인 의사 검색 및 진료 플랫폼인 Haodaifu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이를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출시함. 바이두(Baidu)는 데이터 수집을 주 목적으로 체중계, 혈압 모니터, 손목 밴드 등 제3자 웨어러블 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인 Dulife를 출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의사가 결과를 판독하여 조언을 제공하게 됨.
- 5) 중국 최상급 공립병원은 전체 병원 중 7%에 불과하지만, 총 병상 수의 36%, 외래 환자의 45%, 입원환자의 39%를 차지하

극적으로 장려해 왔으며, 이를 위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우호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 의료업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개발 지원, 국가 디지털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수립, 원격의료 가이드라인 도입 및 원격진단·처방 시범 운영, 온라인 약국 등록 용이성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장벽 제거 등 실시
- 중국은 민간자본이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⁶⁾하고 있어, 자본력을 갖춘 대형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으로 의료서비스 사업에 진출

〈그림 1〉 중국 헬스케어서비스의 신사업 모델과 보험회사 진출 현황



자료: BCG(2015), "China's Digital Health-Care Revolution" 재구성.

■ 우리나라도 고령사회 진입⁷⁾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적극적 건강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국내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사업환경에 맞는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가 차원에서 헬스케어 인프라에 대한 육성 정책의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관련 규제⁸⁾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가 요구됨.
 - 현행 민간사업자의 헬스케어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료행위⁹⁾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 유사 의료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다분함. [KiRi](#)

는 등 대형 공립병원이 의료자원과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짐.

- 6) 중국 국무원은 2014년 8월 의료 공급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보험회사 등 민간자본이 인수합병 및 지분투자 방식을 통해 의료기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소양(2016), 「중국 건강보험시장의 최근 동향과 전망」, 『KiRi Weekly』, 제371호.
- 7) 2018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8)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헬스케어산업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신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에 뒤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9)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에 의하면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사·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정의됨.